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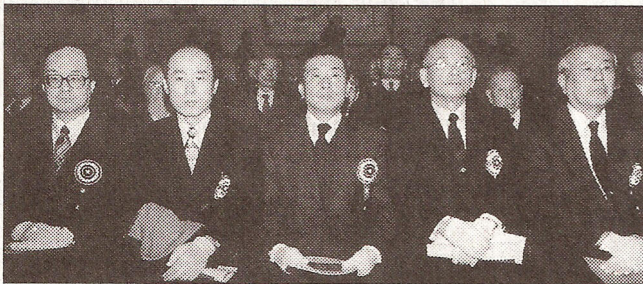
古下 송진우선생 50주기 추념식

○...古下 宋鎮禹선생 50주기 추념식이 29일 오전 재단법인 宋鎮禹선생기념사업회와 동아일보사 공동주최로 동아일보사 서울충정로사옥 대강당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추모묵념과 李塚柱 동아일보사 주필의 약력 보고, 權彝赫 宋鎮禹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의 추념식사, 黃昌平 국가보훈처장의 추념사, 그리고 헌화및 분향으로 이어졌다.

이어 沈之淵 경남대교수가 「일제하 古下의 사상과 노선」, 金學俊 단국대이사장이 「해방정국에서의 古下의 사상과 노선」이란 제목의 추념강연에서 해방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지한 古下의 일관된 노선을 높

이 평가했다. 이 자리에는 유족으로 손자인 宋相現 서울대법대교수등 4명이 참석했고, 金炳瑄 동아일보사 회장·洪一植 고려대총장·蔡汝植 전국회의장·黃寅

性 전국무총리·劉彰順 전경련 명예회장·金有厚 변호사·奇世勳 인촌기념회이사장·姜仁燮 신한국당의원·金相廈 대한상공회의소회장·孫世一 국민회의의원·李康勳 전광복회장·金勝坤 현광복회장·시인 具常씨·玄永源 현대상선회장·金知吉 공동체의식개혁협의회 공동상임의장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신흥 기자>



추념식에 참석한 金學俊 단국대이사장·沈之淵 경남대교수·黃昌平 국가보훈처장·權彝赫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李塚柱 동아일보주필(왼쪽부터).